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兼編輯人 金性洙
印刷人 趙宜淳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日本無産黨의 結社禁止

[illegible] 派와 [illegible] 地方評議會의 政治研究會除外 [illegible] 에 [illegible] 하는 [illegible] 黨의 [illegible] 無産政黨의 成立問題는 [illegible] 團體의 [illegible] 農民勞働黨은 [illegible] 하야 [illegible] 一日午前三時外지 協議한 結果 綱領 規約을 [illegible] 修正하고 [illegible] 組合의 [illegible] 十五團體約十四萬三千人인데 其中日本農民組合의 六萬七千人 [illegible] 市電自治會의 一萬人의 重要 [illegible]

그와 가치 이러케 成立된 農民勞働黨은 日本內務大臣이 警視總監에게 訓令하야 同日即十二月一日附로 結社禁止를 命하엿다 그 理由를 말하면 重要한 것이 綱領의 一部가 共産主義의 實行을 意味하는 것일 뿐 아니라 外部에 標榜되는 것은 名目뿐이오 그 背後에 別로 다른 無産政黨의 創立準備에 從事한 人物의 評歷과 思想及性行으로 보아서 今番에 成立된 것은 名目을 無産政黨이라 하나 其實은 日本共産黨의 實行을 企圖하는 共産主義의 團體와 相容되지 아니하는 점이 잇다 [illegible] 하야 이와 가치 禁止를 當한 各團體代表者들은 一方憤激하야 一大反抗運動을 惹起할 形勢가 動하며 一方으로는 穩健한 手段으로 行政訴訟을 提起를 決定하엿다고 한다

三

아모리 極端으로 對하는 것이 發達되는 階級社會의 特色이라고는 할지라도 普選을 目前에 控하고 잇는 日本의 爲政者가 無産政黨의 存在를 全然無視하는 手段으로 對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即今番에 內務省에서 取한 右禁止命令이 無産政黨의 發生을 否定하는 意思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니 이 禁止는 다른 方面의 意味로 보지 아니할 수가 업다 即 如何間 發生할 것이오 發生한 後에는 相當히 成長할 運命에 잇는 無産政黨을 이 禁止로 因하야 發生 初頭에 左傾的 氣色을 띄는 것을 [illegible] 하야서 以後 猛烈할 戰鬪力에 미리 어느 程度의 壓縮을 加할 必要가 잇다고 맛은 것이 그 本意라고 보는 것이 合當하다 그러나 大體로 보아서 現下의 日本 勞働運動을 支配하는 思潮가 이러한 當局者의 計策이 效果를 呈하기에는 너무나 [illegible] 을 [illegible] 한 狀態에 잇는지 甚히 疑心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업다

孫傳芳提携로 吳佩孚驅逐

全國統一의 馮氏大望

馮玉祥氏는 郭松齡氏와 握手하야 張作霖氏의 驅逐을 實行하고 잇는 데 一方孫傳芳氏와도 提携하야 吳佩孚氏를 此와 分離케 하야 驅逐하려는 策을 講究하는 中이다 馮玉祥氏의 根本方針은 奉天派直隸派의 二大軍閥의 首領을 埋葬하고 國民軍의 勢威를 永久히 除한 後 形勢를 一致하야 外國民軍이 最大의 勢力이 되고 指導者가 되야 民意에 合한 根本的 時局解決策을 講究하려 하는데 國民軍系有力者는 廣東政府와도 提携가 有望하게 되면 中國統一의 希望이 生하엿다고 語하더라(北京二日發)

內閣改造로落着?

三派力勸과 馮氏態度

時局收拾의 中心人物인 馮玉祥氏를 쌀고 周圍에는 大의 三派가 잇서 各各 自派의 主張을 가지고 熱心으로 此機會로 쌔 根本的 政治改革을 斷行할 것이라 主張하며 第三은 [illegible] 國民黨中의 共産派等인데 昨年 來의 新黨의 [illegible] 하야 馮氏를 勸說하고 잇다 即第一派는 從來의 舊派와 昨年來附隨한 國民黨의 在外政治組織을 破壞하야 共産的組織으로 改革할 것이라 論하고 잇스나 結局馮氏는 第二第三의 主張에는 크게 傾耳치 아니하고 第一의 主張을 容認하야 內閣改造로써 落着되리라 觀測되더라(北京二日發)

中國新閣員內定

新內閣閣員은 如左히 內定되엿더라(北京二日發)

總理 黃郛 財政總長 陳錦濤
外交總長 王正廷 交通總長 盧信
陸軍總長 李烈鈞 海軍總長 鈕永建
農商總長 梁士詒? 內務總長 許世英

過渡期維持意嚮

最後로委員制

二段에分하야

◇國民軍의時局收拾策

國民軍의 時局收拾策은 急激한 政變을 避하기 爲하야 此를 二段으로 分하야 爲先段執政을 中心으로 短期의 過渡內閣을 成立케 하야 混沌한 現局을 一時維持케 하고 軍事의 一段落을 待하야 第二段의 策을 使用하고 段執政의 下野後를 網羅하는 委員 各方面의 勢力을 網羅하는 委員制를 創設하고 第二의 過渡期를 維持하려는 意嚮이더라(北京二日發)

李景林逐出計劃

後任은鹿鍾麟氏로

馮玉祥氏는 去月三十日韓部會議에서 李景林氏를 三日以內에 天津에서 逐放하기로 決定하고 國民軍第二軍으로부터 二個旅第三軍으로부터 四個旅의 出動을 命하야 先頭는 天津沿線의 楊村에 着하엿다 그런데 馮氏의 李景林氏 逐放의 理由는 國軍再三의 要求에 對하야 依然히 鮮明한 態度를 表明치 아니하는 데 在하나 眞目的은 確實히 直隸省을 手中에 너코 兵器彈藥을 沒收하려 함에 在하다 그리고 李氏의 後任은 이미 鹿鍾麟氏로 內定하엿더라(北京二日發)

郭松齡氏의 軍資金

四方으로모아든것

郭松齡氏의 軍資金은 反奉動發前 부터 抑留하는 中이고 또 中央銀行에서 扣留하고 [illegible] 道理事長 [illegible] 氏는 露國極東銀行을 通하야 百十萬圓을 보내 엿고 또 現大洋二百萬元을 天津交通銀行에서 抑留하고 何處에선지 金主不明의 四十萬圓이 有함 [illegible] 元假量의 援助를 受하엿다 더라 目下極秘裡에 東三省官憲으로부터 [illegible] (奉天電)

一擧에 勞農政治

郭氏의 奪奉計劃內容

郭松齡, 馮玉祥, 「카라한」氏等의 陰謀關係는 旣報와 如히 數年來極秘裡에 密接한 協約이 成立한 것인 바 去月二十三日反奉行動을 하는 第一步로 錦州 吉林軍에 兵變이 잇다 報하고 義益山으로 二旅의 兵을 北上식혀 張作相軍의 背後即綏中에 急行케 하야 이를 抑制하려든 것이 그 곳 萬家屯에 下車하엿슴으로 張作相에게 武裝解除를 當하고 更히 第二回에 二個列車의 兵이 亦是山海關을 突破하야 北上하려는 것을 汲金純氏에게 發覺되야 畢竟 兵變이 아닌가 하는 것을 知한 汲金純氏는 [illegible] 局第一步는 失敗에 終한 것인데 當時郭氏는 二十四日에 二十三日此方法이 成功하면 二十四日에는 奉天城에 直入하야 戰況報告의 名下에 張作霖에게 面會하고 即時直接談判으로 張作霖父子를 驅逐하야 革命의 赤旗를 揭하고 二十五日北京歸任途中의 「카라한」氏와 協議하야 勞農制政治를 施行할 計劃이 엇더라(奉天電)

李氏의 順奉은虛僞

露國의 誤奉宣傳에不過

逃來者張氏에報告

李景林氏의 反奉態度는 最近다시 軟化하야 오히려 張氏와 親近하게 되엿다는 말이 傳하나 同地에 잇는 今回의 戰禍에 脫走歸命한 張氏等의 張作霖氏에게 報告한 바에 依하면 李景林氏는 오래 前부터 馮玉祥氏와 密接한 關係가 有하엿는 바 [illegible] 李景林軟化한 것은 明白한 事實이나 다만 心을 利用하야 一擧에 破滅하려는 巧妙한 露國의 宣傳이라고 하야 奉天當局은 一層警戒를 嚴히 한다 더라

綏中을中心으로 奉郭一大決戰

奉軍總司令部緊張

形勢觀望의 郭松齡氏는 昨日來全線에 出動命令을 發하고 各部隊는 戰線에 就하엿다 이미 對抗하기로 奉軍도 戰備를 整頓하엿슴으로 四日 綏中을 中心으로 一大決戰이 行할 것이오 此決戰을 分岐로 張作霖氏의 運命을 支配하는 것으로 總司令部는 急據緊張하고 兩軍의 兵力은 各五萬이라더라(奉天電)

連上陸한 許蘭洲氏를 介하야 張作霖氏에게 面會를 要請한 바 許氏는 即時歸奉하야 張作霖에게 報告周旋하기를 約하고 劉明九氏一行을 大連에 留하고 許氏는 張作霖氏로 面會의 承諾이 잇다 하야 一行의 上奉을 促하엿슴으로 二日午後三時二十五分奉天驛着列車로 到着하엿는데 張作霖氏는 特히 吉田總領事에게 其旨를 告하고 右者는 張作霖暗殺團의 一行이니 特히 奉天驛에서 捕縛할 承諾을 得하야 中國官憲은 日本領土인 奉天驛에서 日本巡查憲兵警戒下에 이를 捕縛하엿다

郭松齡氏使者

日警警戒下에

奉天驛서捕縛

郭松齡氏는 張作霖氏의 意嚮을 探하기 爲하야 秘書劉明九外六人을 天津을 經由하야 大連에 派遣하엿 [illegible] 그런데 郭松齡氏의 調停을 爲하야 越境中의 許蘭洲氏(奉天側調停使)와 共히 一日大連에 [illegible] 逃走하엿스나 이 一行中三名을 들을 다시 [illegible] 國으로 分將來를 爲하야 日本의 威信을 失墜하는 結果를 招하야 禍根이 될 것이라 하더라(奉天電)

馮軍奉天直衝

李景林氏는下野?

馮玉祥氏는 李景林氏의 態度가 不鮮明함에 不安을 感하야 第一軍의 一部로 郭松齡氏를 援助하야 熱河方面으로 奉天을 衝하고 更히 第二第三軍으로 李景林軍을 衝하기로 決하고 이미 郭軍은 馮軍에서 軍需品及食糧品의 供給을 受하야 數日中에 山海關方面에서 激戰이 起하리라 하며 又李景林氏는 自己의 故鄕인 直隸省이 兵火의 巷이 되기를 避하야 結局下野하리라더라(北京二日發)

國民軍熱河占領

國民軍은 熱河를 占領하엿더라(北京一日發)

米驅逐艦四隻

中國方面急派

米艦一隻과 共히 警備中이더라(東京電)

芝罘又復不穩

芝罘에는 又復不穩狀態에 陷하야 同地의 日本人居留民으로 領事에게 生命財産의 保護를 要請하엿슴으로 驅逐艦을 派遣하기로 되엿스며 英國巡洋艦一隻은 二日午前六時 入港하고 又日驅逐艦樺號一隻은 駐中米國公使「매크머레이」氏의 申請에 依하야 驅逐艦四隻은 「마닐라」로부터 中國方面에 出動하엿다는 旨를 發表하엿는 데 그 說明에 依하면 上海의 事態는 그다지 重大치 안하나 北京天津芝罘의 排外 [illegible]

民心安定을爲하야

張氏對奮吏訓電

民心의 安定을 圖하기 爲하야 張作霖氏는 二日各地方警察官廳에 對하야 左記訓電을 發하엿다

今番郭松齡이 起事하야 東三省을 擾亂하려고 하나 此에 當하는 者는 單只彼一人으로 此에 盲從한 者는 아모 罪도 업다 余는 郭松齡의 罪는 憎하나 他人을 憎치 아니 한다 그러 함으로 各地官憲은 其家族을 保護하야 遺憾업기를 期하라(奉天二日發)

仁義軍歸順說

被服糧食支給

某處者情報에 依하면 馬賊團仁義軍大頭目은 過般來 張作霖氏에게 直接歸順을 交涉中이다가 此가 實現되면 部下三千名은 即時官兵이 되고 大하야 逃走한 [illegible] (上海二日發)

郭氏의 督辦에

安軍反對運動

今番安徽督辦에 新任된 郭松齡氏가 過般의 戰爭에 際하야 孫, 段兩方面에 關係하야 傍觀한 外에 孫傳芳氏는 매우 此를 不快히 녁이고 安徽軍의 同氏排斥運動을 後援하고 잇슴으로 安徽軍總司令王晉氏의 態度가 매우 强硬하게 되야 同氏가 萬若推薦되야 督辦에 就任한다 하면 一戰爭은 未免할 狀態이더라

郭氏安協意嚮

奉軍의 發表

奉天軍總司令部는 如左히 發表하엿더라(奉天電) 郭松齡氏는 大勢의 不利를 見하고 某外人에 託하야 安協을 提議할 意嚮이나 其態度에는 三省民의 憤慨가 如干아니오 또 아마 容認키 難하리라더라(奉天電)

示威運動은 北中國動亂과 相伴하야 在中米國民의 生命財産을 保護할 情況을 要하게 되엿다 하더라 頭目은 昇兵團長으로 就任하게 되면 이라는 데 若此가 不如意하게 되면 一擧에 開島及朝鮮國境을 襲擊할 計劃이라는 바 此에 對하야 張作霖氏는 仁義軍이 이미 歸順한 것으로 認定하고 아직 武器彈藥의 配給은 안하나 被服及糧食等을 支給中이라는 傳說이 有하더라

「內亂問題가아니다」

勞農露國의 反日煽動

◇…在奉日人間의 觀測

張作霖氏가 悲運에 잇슴에 乘하야 義者郭松齡氏의 陰謀에 失敗한 露國의 四面으로는 隊頭히 東三省에 秘密宣傳隊를 潛入식히는 中인바 그들의 目的은 滿蒙에서 日本勢力을 驅逐하는 것에 잇다 하야 中國에 對한 日本의 侵略을 排除하라 滿蒙의 赤思想을 所有者等에게 宣傳하야 盛히 反日을 煽動하며 問題는 到今하야는 中國內亂은 아니고 되엇다고 日本人側에서는 觀測하더라(奉天二日發)

段氏辭職後

時局은益混亂

◇…日外務當局談

段執政이 辭職하기로 決定한 것은 事實이나 過般馮玉祥氏가 張家口에서 會見한 結果 時局收拾과 關稅會議遂行을 爲하야 段執政을 擁護하기로 決定하엿슴으로 段氏의 辭職에 反하야 段氏等의 權勢를 [illegible] 가 馮玉祥側의 壓迫이 되고 又馮玉祥氏가 內閣改造를 爲하야 段氏의 意嚮에 反하야 는것은 段氏가 가세삼스러히 辭職을 決行하게 되엿다 乃至 이들에 依할 것이며 又最近馮軍의 段執政擁護를 口實로 하는 舊交通系의 王揖唐氏等이 段氏를 掠하야 段氏를 慣激케 한 것도 原因일 것이다 그러나 馮氏는 會議終了까지는 極力留任을 勸說할 것이며 萬若段氏가 此에 反하야 辭意를 貫徹할 時는 關稅會議도 停會가 되고 時局은 益益混亂하리라더라(東京電)

撫順에自衛團

戒嚴令이 宣布된 撫順市街는 更히 四千名의 自衛團을 組織하고 市內一千戶의 商家는 團員各一名乃至三名式을 出하야 銃器各一挺을 拾과 協力하기 로 되엿더라(撫順電) 提供하며 警備二千個를 配備하기

關會繼續은絕望

段政府辭職通告로

段政府는 一日의 閣議를 最後로 總辭職하기로 되야 二日非公式의 旨를 通告하엿고 關稅會議의 絕行은 絕望에 歸하라는 中이더라(北京二日發)

日本은 繼續決心

日置全權談

日置全權은 二日에 語하되 段執政과 無關係의 新政府가 組織되면 關稅會議의 續行에는 新手續을 要할 것이며 段執政下에 新內閣이 組織되면 無論 現狀대로 繼續될 터인데 各國全權은 時局의 變化하더라도 繼續할 터이다 그리고 中國이 會議의 續行을 問題로 삼는 다 하나 최어도 日本은 繼續할 決心이다 最近의 委員會에서 中國側은 一億元의 增收가 되면 關稅增率의 [illegible] 業을 延期하자고 하는 中이나 日本은 [illegible] 增加收入을 먼저 決定한 後 稅率을 決定하자고 하는 中이니 次의 委員會에 修正案을 提出할 豫定이다 云云(北京二日發)

在滿日人安定

奉天軍은 部下各首腦者의 結束에 依하야 小康을 得하고 在留日人은 日軍의 集中警戒의 增員等으로 安定을 得하엿더라(官邊着)

郭軍最高顧問

林長民氏

林長民氏는 北京을 脫出하야 天津으로부터 郭松齡軍의 護衛를 受하야 山海關으로 赴하엿다 그런데 郭軍의 最高顧問으로 外交總長에 就任한다더라(北京二日發)

埃及時局險惡

埃及의 錯綜한 時局은 漸次新局面을 示하랴 는 危惧가 有하야 人心은 恟恟하더라(巴里二日發)

英國이 埃及에 對한 財政政策에 對하야는 冷淡한 態度로 迎하엿는 데 此로 因하야 同氏의 地位가 危險한 것은 알 수 잇다 더라(巴里二日發)

西國文官政府

樹立은不遠?

西班牙獨裁官 브리모데리베라 將軍은 近近文官政府를 樹立할 意嚮이라 더라(마드리드二日發)

「부」氏의 財政案

下院은冷視

「로칼노」條約에 調印을 終하고 巴里에 歸來한 佛蘭西國務總理「부리앙」氏는 下院에서 各議員의 歡迎을 [illegible]

軍縮에第一步

三日부터協議

國際聯盟은 三日로써 軍備制限에 對하야 協議할 터인데 十個國으로 된 聯盟理事會는 될 수 잇는 대로 軍備縮少會議의 研究準備次로 軍縮特別委員會를 開設하기로 되는 바 日本은 全權으로 松田道一 博士를 委員으로 하리라 더라(제네바二日發)

◇東亞漫畫 投稿歡迎 [illegible]

색리 가잇스니 인제 든지ㅣ

再樹立을計劃

單一無産政黨

各組合에聲明書發送

◇日本農民組合中央委員會

日本의 關東, 關西各地의 日本農民組合中央委員은 二日에 稱緖上京하야 午後六時로부터 本所松倉町 產業青年會에서 臨時中央委員會를 開하고 巴洋淺沼氏로부터 禁止에 至하기 外지의 經過報告가 잇슨 後 左의 聲明書를 決定하고 全國各組合에 發送하는 同時에 上京中의 委員은 大阪으로 撤去하야 全國各勞働團體에 勸誘狀을 發하고 再次單一無産政黨樹立에 努力하기로 하엿더라(東京電)

聲明書

我組合及友誼團體의 許久한 歲月에 日한 努力과 犧牲의 結果겨우 自立된 農民勞働黨은 政府의 壓迫에 依하야 瞬時로 不得已解散하게 되엿다 我等의 憤怒는 果然 永久히 消滅할 수 업다 無産階級解放運動에 投身한 吾等의 當初부터 壓迫은 覺悟한 바이라 我等의 運動은 斷然 可政府의 壓迫에 屈服하는 것이 아니다 無産階級은 其自身의 政黨을 組織하는 것이 絕對로 必要하다

그리고 그것은 全國의 單一政黨이 아니면 아니 된다 即 我等은 他의 겟 友誼團體의 協議를 得한 後 再次起하야 無產階級의 全國的 單一政黨의 組織運動을 開始할 決議를 가진 것을 聲明함

云云하는 것이 아니라 要컨대 實의 問題로서 政治研究會, 評議會方面에서 個人的으로 入黨하는 것을 上斷然히 이를 不許하고 行政訴訟을 提起하든 드리도 리혀 宿虎衛軍 로 생각한다고 翻하야 結局訴訟도 [illegible]

勞總同盟加入

千葉人力車夫

千葉市人力車夫는 今番勞働總同盟에 加入하게 되야 近近支部發式을 擧할 터이더라(千葉電)

產業獎勵에努力

湯淺新總監談

故下岡總監의 後任으로 自己와 갓흔 淺學短才는 到底히 其任에 當할 수 업다고 再三辭退하엿스나 先輩知己의 勸告도 잇고 周圍의 事情上 엇지할 수 업슴으로 드듸어 受諾하기로 決心하엿다 그러나 朝鮮에는 以前地方長官及當時漁村視察에 赴하엿슬 뿐임을 表裏의 事情에 어둡고 統治方針과 如한 아직 決定한 것은 업다 任官後에는 至誠公平을 標語로 하야 總督府의 內外에 當하고 그 事業施設에 對하야는 이 미明年度豫算도 決定한 今日에 그 대로 繼續할 밧게 업다 特히 產業獎勵에 [illegible]

一日一千石

北樺太의採油

今番에 調印된 北樺太油田은 全部一萬三千에 키(一)에 키는 三千坪地積으로 一日一千石을 採取할 만 하다 더라(東京電)

阪神綿絲狀況

輸出減少=十一月下旬綿絲輸出은 六千八百四十八梱으로 中旬보다 九百六十四梱의 減 昨年同期보다 六百六十三梱의 增加이라더라

在荷增加=十一月末阪神綿絲在荷는 一萬八千三百九十三梱 半으로 二十日現在보다 一千六十八梱半의 增加이더라(大阪電)

辭令

判事 增山 眞幸
任朝鮮總督府判事(六等) 米倉 榮二
任朝鮮總督府技師 片渾 政哉
休職總督府裁判所書記
依願免本官

橫說竪說

◇日本에 無産政黨은, 解散되자 마자, 解散을 當하엿다고

◇한번 解放되엿다고, 斃散할 것은 업다, 產婆가 去益은 할 것 이나 아!

◇爲政者는 국장거- 美人이 나, 봄되어 오지!

明年度의 朝鮮特別會計

明年度朝鮮特別會計의 規模에 對하야는 過般大藏省과 總督府 間에 協議中이든 바 公債金及補充金增額에 對하야 稍稍하야 本月三十日로 一旦大體의 結末을 告하엿는 데 그 內容은 如左하다(東京電)

▲公債金 新規公債增額 五百萬圓 旣定公債額 二千萬圓
▲補充金
▲災害復舊費 六百萬圓 內大正十五年度總額二百萬圓(但明年度追加豫算에 計上) 大正十四年度增額 三百萬圓(但同年度追加豫算에 計上)

朝鮮事業公債

豫算概要

一千五百萬圓을 大藏省과 總督府의 讓步에 依하야 大藏省案에서 五百萬圓增의 一千五百萬圓에 決한 結果總督府大正十五年度豫算은 大體左와 如히 되엇더라(東京電)

歲入
經常部 一四八,四六五
臨時部 三四,九二七
計 一八三,三九二

歲出
經常部 一四六,三五六
臨時部 四六,九三五
計 一八三,三九二

右系政黨組織

八團體와勞總

解散의 作用은 共産派의 除外

左系非政黨主義에 還元될뜻

日本의 農民勞働黨은 結黨禁止의 運命에 빠젓다 이에 依하야 共産系는 完全히 政府의 壓迫을 當한 것인데 右系八團體의 總同盟파 結合하야 不遠하야 日本勞働總同盟과 結合하야 不遠하야 [illegible] 當局의 意向에 觸하엿는지 를 內務省에 照會하기로 하고 一方行政訴訟은 右系의 無産政黨이 組織되리라 하고 當局側의 意見에 依하면 禁止의 理由는 綱領, 規約의 表面에 잇다 하더라(東京電)

產米增殖

實行方針

一般과 東拓에

十四個年의 完成豫算으로 來年度부터 遂行할 朝鮮產米增殖計劃은 [illegible] 今回 朝鮮米增殖計劃도 [illegible] 表이 日本帝國의 要請에 의하야 [illegible] 二千七百萬圓을 [illegible] 期限內에 增補한 [illegible]

▼빠울氏散 實驗者의 거짓업는 感謝例

◎二十年來의 喘息이 十二日分服藥으로 아주 輕快하게된 感謝例

◎겨우 五包를 服用하고 三十日以上病床에 잇든 患者가 蘇生한 感謝例

◎痰咳에 퍽 가 混川하든 重한 氣管支炳이 七日分을 服用하고 全然히 나지 안케 된 感謝例

◎慢性氣管支炳이 十二日分으로 全快한 感謝例

◎夜間安眠 할 수 업는 難症喘息이 少量의 服藥으로 全治한 感謝例

◎十年來의 喘息이 五日分으로 아주 나아 家內一同이 大喜한다는 感謝例

如斯한 實驗者의 感謝狀은 每日不絕히 언제든지 公開합니다

南洋土産 喘息氣管支藥 빠울氏散

五日分一圓四十錢, 十日分二圓八十錢, 二十日分五圓四十錢, 四十日分十圓(郵稅 [illegible])

日本總發賣元 東京市本鄉區湯坂町五十六番地 河合洋行 振替東京四六二八二 電話小石川六八三五

代理店 京城府 竹內洋行藥品部 釜山府 手島文士

十年의 喘息 五年의 기침 氣管支에

南洋土產土藥

●呼吸器病의 重大한 肺心臟까지 侵하야 血과 肉을 奪去하는 것이니 速治하라

漢城靴新製靴部 電話(光)一八〇

苗木 營業案內 新代進步 果樹苗木 全鮮最大 安香園 振替京城一一〇四番

ClibPDF - www.fastio.com

咸北慶源地方에 今年初의大降雪

交通杜絶、自動車埋沒

인축의사상은업는듯하다

이일오후다섯시에 뎐신국착뎐에의하면 함경북도경원(咸鏡北道慶源)방면에는 지난달 이십구일부터 나리기시작한눈이 이일까지 계속하야 퍼부어서 싸힌후에 바람까지 심하게부러 교통은 전연두절되엿다는데 경원(慶源)북창평(北倉坪)사이를 통행하든 자동차 한대는 눈에뭇처 구출할길이 업다는바 교통이 두절되엿슴으로 자세치는 안으나 인명의 사상은업는 모양이라더라

間島各地大雪

텬도텰도불통

간도(間島)각디방에는 일월아츰부터 나리는눈이 계속하야 쏘다지어 간도(天圖)텰도는불통되엿다더라

各地初雪

鳳山地方 지난달삼십일오후부터 황해도봉산군(鳳山郡)일대에는 첫눈이 나리기시작하야 해서(海西)일대에 금년처음으로 눈이 나리엇다더라

公州地方 충남공주(公州)디방에는 지난일일부터 첫눈이 나리기시작하야 영우에 약다섯치가량이나 싸히엇다는데 온도는 령하삼도로 나려갓다더라(공주)

全州地方 전주(全州)디방에는 지난달이십팔일에 금년처음으로 첫눈이 나리엇다더라

羅州地方 라주디방(羅州)에는 지난일일부터 갑작히 치위가 심하야 눈이 나리기시작하야 날이 추워지엇다더라(광주)

論山地方 충남론산(論山)디방에는 지난일일아츰부터 첫눈이 나리기시작하야 매우만히 왓다더라(론산)

裡里地方 리리(裡里)디방에는 지난일일새벽부터 일기가 흐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눈이 오기시작하야 이일아츰까지 한치나 왓다더라(리리)

安岳地方 황해도 안악(安岳)디방에는 요사이 일기가 갑작이 치워지더니 지난달삼십일밤부터 눈이 오기시작하야 다음날까지 눈이 나리엇다더라(안악)

博川地方 평북박천(博川)에는 지난달삼십일밤 아홉시부터 눈이 오기시작하야 그이튼날까지 퍼부엇는데 일긔도 매우치워젓다더라(박천)

帆船三隻顚覆

지난삼십일군산항에서

지난달 삼십일밤부터 군산(群山)에는 돌연히 폭풍이 이러나며 우박과 비바람이 동시에 쏘다지어 그때항해중이든 범선(帆船)들이 모다 조난하야 그중 범선 삼척은 전복되엇다는데 선원들은 모다 구조되엇슴으로 인명에는 아모 피해가 업섯다더라(군산)

各地의暴風雨

襄陽서도 강원도양양군현남면(襄陽郡縣南面南津里)의 어선 박귀성(朴貴成)외 네명은 지난삼십일 오후 네시경에 그곳에서 남쪽사령가량되는 곳에서 고기를잡다가 갑자기 이러나는 폭풍에 배가 뒤집혀 당장죽을 디경에 이른것을 해안에 잇든 어부들이 급히 구조하야 생명에는 관계가 업시되엿다더라(군산)

關門地方 일본관문디방(下關門司)에는 지난일일밤 이래로 폭풍우가 이러나 이일새벽까지 그 형세가 매우 맹렬하야 문사항내에는 기선외에 목선의 파선된것이 매우 만흐며 피해가 상당히 만흐리라더라(문사)

米穀流失 경기도부천군 서곳면(富川郡西串面)에 사는 배사공유귀연(兪貴淵)은 쌀삼백육십섬을 실고 지난달 이십팔일오후 아홉시 신화(又信丸)에 영종도(永宗島)를 써나 인천에 (仁川)으로 향하야 가든중 영종도와 월미도(月尾島)사이에서 오후 네시경에 뜻밧게 폭풍에 맛나 쌀섬과 부두 짐이 여러개와 그밧게 여러가지 가격 난 것들은 거의 다 바다로 떠나가 버리엿다더라

朴烈事件公判

래년이월로결뎡

박렬사건(不敬事件朴烈)의 공판은 래년이월삼오륙 량일에 일본동경대심원(東京大審院)에서 개뎡하기로 결뎡하엿다더라(동경뎐보)

風紀改善村

대동군류신리에서 동민들이려행

평남대동군 률리면류신리(平南大同郡栗里面柳新里)에서는 동리사람들이 도박과 술을 금하고 풍긔를 개선하기위하야 동리사람들이 여러가지 규약을 맨들어 동민자치를 실행한다더라

寒天에우는罹災民

몸둘곳바이업서

고양군구수텰리에이십여명 공우회에서움집을지여주어

지난번수해로 집을 물에써내보낸 그동안일긔가 점점 치워지는대로 몸둘곳이 업서 고생하든 구수텰리 리재민들은 로천(露天)에서 지내고 잇슴으로 서강공우친목회(西江工友親睦會)에서 그들에게 움집을 지어주고 이불과 침구를 주어 그들을 위로하엿다더라(고양)

數萬圓을橫領

하다가被捉

평양서에서체포

평남대동군룡연면 리병희(李炳熙)는 방금 평양경찰에 서 취조중이라는데 사건의 내용은 그가 룡연면에서 몃만원의 큰돈을 횡령한 것이라더라(평양)

靑年五名拘留

지난달 이십구일밤 고양군 룡강면 구수텰리(高陽郡龍江面舊水鐵里)방고허(房古許)에 이르러 청년 다섯명이 구류되엇다더라(고양)

押收書籍과膽寫物은

모다過激한것

형사의불법침입이문뎨로 경대사무관이지사에질문

일본경도대학(京大)생과 동지사대학(同志社大學)생의 불온문서사건에 대하야 검사는 디방재판소에서 압수한 서적과 등사물은 모다 과격한것이라 하며 형사가 부당하게 침입한것을 문뎨로 경대사무관이 경도부지사(京都府知事)를 방문하고 질문하엿다더라(경도뎐보)

月給問題로

또騷動

부산파업인공

지난이일오후세시경에 부산인쇄직공파업단원 차학순(車學舜)외 사인이 경남인쇄소에 가서 월급을 달라고 강청하엿슴으로 경관이 출동하야 그들을 설유하야 돌려보냈다더라(부산)

二千年前玄琴

樂浪古墳에서發掘

녯날조선락랑시대(樂浪時代)의 분묘에서 나무로 만든 거문고 한 개를 발견하엿다는데 그것은 이미 여러번 보도하엿거니와 그것은 발굴한 거문고보다도 훨씬 오랜것이라 하며 그 형상은 지금것과 비슷한 것으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보존되엇다더라

新義州署로押送

關係者一名을追加해

작일오전에경성을써나서 종로서주의자대검거사건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엿든 주의자사건의 관계자 림원근(林元根)외 여러명은 작일오전에 신의주경찰서로 압송되엇다더라

雪夜에棍棒强盜

담배가가에침입해 주인되는녀자를무수난타후금전강탈

지난달삼십일 밤중에 평양부(平壤府)의 담배가가에 강도가 침입하야 주인 녀자를 몽둥이로 무수히 따리고 돈을 강탈하야 다라낫다는데 평양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라더라(평양)

强盜前科者가

형사행세하다

평양부상수리(上需里)의 강도전과자가 형사로 가장하고 사람을 위협하다가 평양경찰서에 체포되엇다더라(평양)

水災當時漂流物을

多數히拯出隱匿

발견된자가벌서사십여명 아즉도은닉한자가만타고 江華署繼續搜索中

지난번 한강의 홍수로 인하야 강화디방(江華地方)에 표류된 물건을 건저다가 숨겨둔 자가 사십여명이나 발견되엇는데 아즉도 은닉한자가 만흐리라하야 강화경찰서에서는 계속하야 수색중이라더라(강화)

舊馬山에大火

중국인의집에서불이이러나 다섯호가전소되고겨우진화

【損害二萬圓、原因調査中】

경남구마산원뎡(舊馬山元町)중국인 금물상의 집에서 지난이일오전두시 불이 이러나 바람이 부는 관계로 이웃집 다섯호가 전소하고 겨우 진화되엇는데 손해는 이만원가량이라더라(마산)

高陽火災

지난달삼십일오후열시 고양군신도면진관내리(高陽郡神道面津寬內里)에서 불이 이러나 초가 한채가 반소되엇다더라(고양)

大粒種을優待

수원군(水原郡)에서는 미곡증산을 위하야 대립종(大粒種)을 장려한다더라(수원)

在留同胞百五十

그다지궁핍치안케지냄니다

再昨夜歸國한金永燮氏談

미국뉴욕에 재류하는 조선사람은 약 일백오십명인데 그다지 궁핍치 안케 지낸다고 재작야에 귀국한 김영섭(金永燮)씨는 말하더라

姦夫와同居하며

本夫를謀陷逐出

십칠년간동거하던남편을 재산까지빼앗고내쫏첫다

강원도횡성군 횡성면읍하리(江原道橫城郡橫城面邑下里)최진환의 처 한유명(韓有明)은 간부와 공모하야 본부를 모함하야 재산을 빼앗고 내쫏첫다더라(원주)

普校日人校長이

柔道로少年毆打

남의말하는것을잘못듯고 자긔학교의졸업생을난타

전라남도 려수군소라면(麗水郡召羅面)의 보통학교 일인교장이 그 학교의 졸업생 정병명(鄭炳明)을 유도로 난타하엿다더라

窃盜自首 강화군화개면의 김재신(金在信)은 절도를 하고 자수하엿다더라(강화)

子息妖死로割腹

생활까지곤란하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의 리모는 자식이 요사하고 생활까지 곤란하야 할복하엿다더라(광주)

通信激增

중국의동란과

봉텬국(奉天局)의 통신이 중국의 동란으로 인하야 격증하엿다더라

一回學術講演

명일오후칠시

조선학생과학연구회(朝鮮學生科學研究會)에서는 오는오일오후칠시에 시내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뎨일회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더라

一女數處許婚

평남대동군 남곳면간리의 한녀자를 여러곳에 허혼하엿다더라

◇모임◇

▲서울俱樂部例會 시내서울구락부에서는 오는륙일오후두시부터 시내계동교당(大倧敎堂)안에서 월례회를 연다더라

◇휴지통

▲요새전라북도 각디에서는 자긔의 아들이 죽거나 흑은류산아(流産兒)를 나흐면 그것을 내물에 던져버린다고...

稻熟丸 本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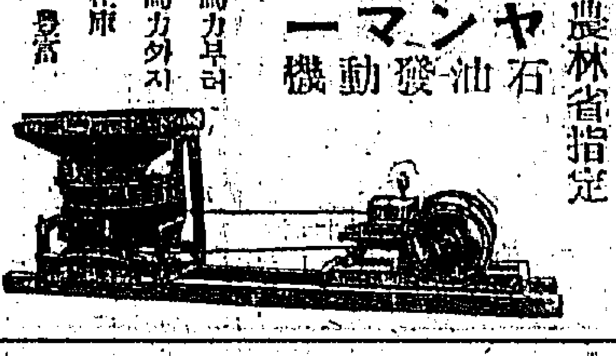
氷炭 丸劾靈

天恩堂大藥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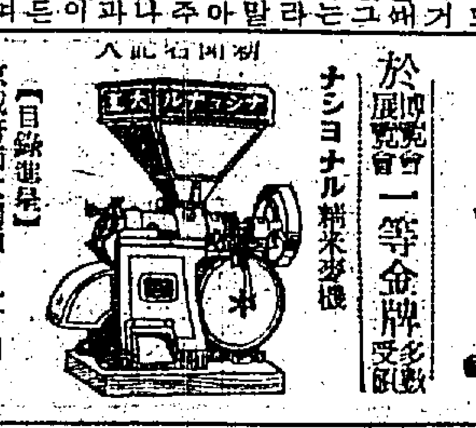
皮膚病 尿病 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晋 午前九時부터一時 午後四時부터七時 京城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八九四

自職業 大友榮商會

籾摺와精米 籾摺一日三百俵 農林省指定



新型 石油發動機 ヤンマー 三馬力부터 十馬力까지 在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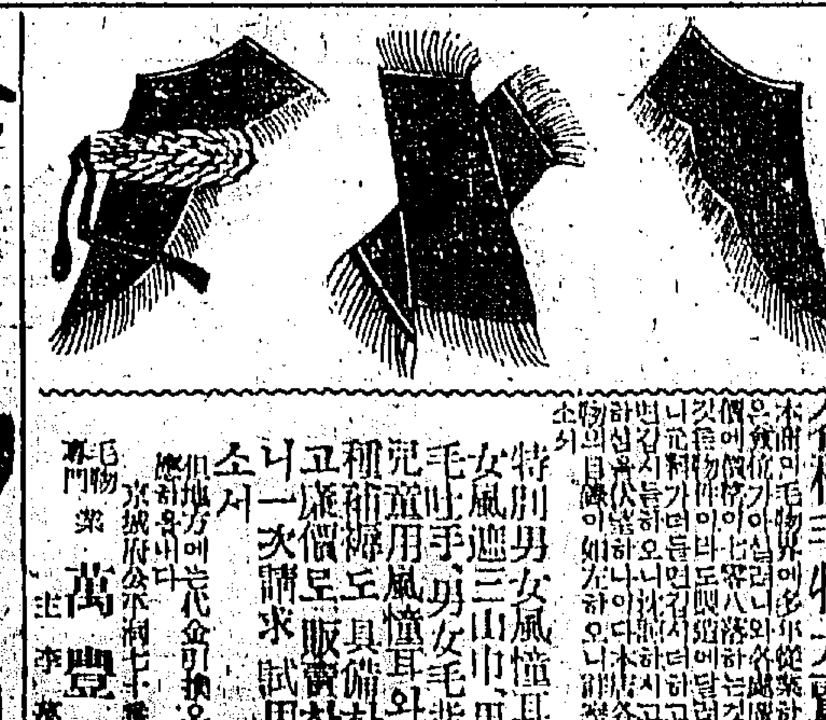
ナショナル精米麥機 於展覽會一等金牌受領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光化門一三六

金牌受領 본춘향유 本椿香油

머리를검고길고윤택하게합니다

本舖 大阪西區



各種毛物大賣出

特別男女風帽耳男女風遮三山巾、男女毛吐手、男女毛背子、兒童用風帽耳와各種綿布도具備하옵고廉價로販賣하오니一次請求試用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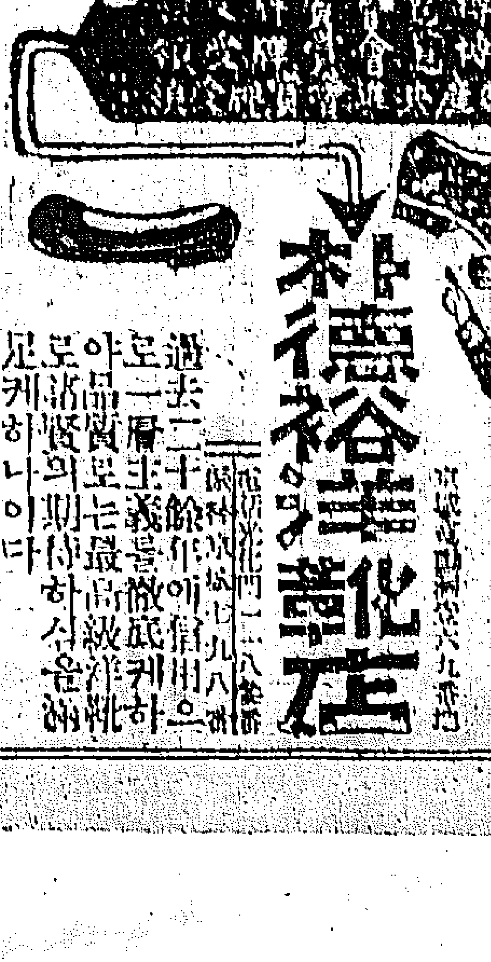
毛物專門業 萬豐號 主李萬

시험하시면아실일

최고한향기가잇고 가루분을항상바르시면살빗치고이지고 고운데가잇슴니다

朴家粉 製造本舖

果樹苗木 小林園



朴德裕 洋靴店

過去二十餘年에信用으로一層主義를徹底케하오며品質은最高級洋靴로...

물감原料 德國顏料廠

獨逸國 品質保證

對 우 世昌

녀자살인범과방화범
남자의삼분지이(二)
◇…원인이어나곳에잇는가

一、사랑이업는내외

◇전번에 는 어린아희에게 노정한안해를 엇어맷기기 때문에 간부가생기고 독살사건이 생긴다고 말하엿거니와 그와반대로 어린처녀에게 노당한남편을 엇어맥김으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이러나는것이다 열서너살된 한참작란이나할 계집아희에게 삼십이나되는 남편이 잇는것은 농가에 흔히 잇는일이다 이것이 얼마나 부자연한일이며 인데구조와 생리를무시한일인가 어린아희는 역시어린아희를 조와하며 늙은이나 큰사람을 실혀한다 더군다나 엇던성뎍요구를 가지고 대한다하는것은 죽는것과 가치실흔일일것이다

◇그요구 하는바를 듯지아니하고 피하고 다라나면 붓잡아다노코 위협을하며 어리고무지한 마음에 『저놈을죽여 업시하면 이런일이업스리라』하는무서운생각이 나거나 불을노코 다라나리라하는 마음이 생기는것이다 이러한 범죄사실은범인에게대하여 동정할 여디가풍부한것으로 십오세소녀가 시가에 불을 노앗다는등 남편에게 독약을먹엿다는등하는죄로 검사국으로넘겨젓다는 긔사를 종종보거니와 오늘날 법률이 정말 공평할것가트면 나히어린소녀를벌하는그것보다 그러한

◇범죄를 짓도록 경우를만드러노흔 그부모나 가족을벌하는것이 올타고 생각한다 아모리 나히만흔남편이라도 무섭고 실흔사람이라도 참고 섬기지아니한것은 그소녀자신의 잘못인지 모르나 또는그러타고 불을논다든지 살인을한다든지 하는것은 무론큰잘못이지마는 애초부터 부모나혹은 보호자가 그런일을할원인과 환경을만드러 주지아니하엿스면 그런일이 업슬것이아닌가 그럼으로 그책임의 반이상은 그부모나 보호자가 가지지아니하면 안될것이오 법률도 여긔대하여 상당한제재를주어야올흘줄안다

이우에 살인범방화범가운데 녀자가 만흔것은 조혼하는까닭이라고 말하엿거니와 둘재로는 사랑이업는 부부가 갓치살게되는 까닭이다 오날날 법률은 사랑이업다는 리유가 리혼하는조건이 되지못한다 사실은 사랑이 업는 부부는 부부가아니요 원수에 갓가운것이지마는 법률은 이것을모른다 남자는 안해가실히면 첩도엇을수잇고 아희도나흘수 잇지마는 녀자는

◇간통죄 의근본은 엇이나 하면 아모리사랑이업는남편이라도 도리혀 살지아니하면 아니되는것이다 한번 시집가면 남편이 실혀서 버리기외에는 오포부게할수가업다 그럼으로 남편을죽여 업새려는 녀자가 생기는것이다 만일법률이 부부가애정이업스면 반다시 떠날것이다 녀자가 떠나기로 허락한다하면 녀자가 제남편을 죽이는 살인범이 만히 줄어지리라고생각한다(계속)

創作 眞珠는 주엇스나(四八)
廉想涉 作

四一二

『아니가기는누가아니가요』

효범이는 이실직고를 할수가 업다 그러고보면 자연히말이당황하여지고 큰소리싸지 나고야말것가타야서 온순히 어린케대답하엿다

『응! 학교에를갓다!』하며 현상스러운눈을 부릅뜨고 처남을 노려보다가

『그럼 영춘이의 합비(인력거군의)는 갓다가무얼햇니? 모군속이니?』하고 소리를버럭가치질은다 그바람에 누의는눈이똥그래서 쇠창을들고나왓다

—흥! 망한놈이 벌서 고해바쳣구나! 그러나 지주사는엇더케되엿누? 하며 효범이는 이왕신이엿다 그래서 어케리가와서도 이면 시원스럽게 토설을하고 돈은간경을 내워하다가 아범에게말한대로 운동회에 쓰라고 가붓다가 아니쓰고 도로주엇다고하엿다

『네방앗헤 노혓든집신두』 진변호사는 비웃는 슐작으로 처남을흘겨본다 그저케 녁에드리오다가 취중에도 효범이방에 치우다보앗다

『종알필요가잇서서 그러는거요?』

『집신요? 그건알아무엇하세요?』

효범이는 침착한 태도로 한참안젓다가 한마디하고 매부를 금 계속취됴를 하는터이다 마치고 하로人밤을 겨오넘기어지 붓드려다노코 엄중한 취됴를마 안커서 영춘아범을 호출을노아 어진뒤에 방중에 사무소로가서 신이엿다 그래서 어케리가와서 떠올려오는것은 불에서진 집신이엿다 하는생각을할케 분김에 머리에 진망석중이가되고 마랏구나! 하여야할것인데 인케는 어떠 이와의정이나 버스러지지 안케 야가잔애를써서 길드려노은인숙 인가!돈만원도 돌리지못할바에 변호사만원의손해다 그나그뿐 원가격이나되는문권을 떼여보내 쌍리미천인 인숙이를일코 삼만원 부러질지는 이뒤집힐일이다 만원 둥뿌리가튼 살림이 언케쫄삭싸 하면흰개아미가파먹어드러간긔 오고이삼일내로 마모변통이업다 게된터이라 귀하한남자는 철박하야 싸지 인케는차커내일가망이 업 증매텸에 더당으로 너허둔문권 애를쓴보람도 업시 계도일코 인 을못둘수업서서 이삼삭을 두고 이도 노치고 리가마자떠나는것 면 자기도눈감고 넘겨버리라고 말앗것다 그리고 일만무사히피 서 만원조건사지 알고그리한줄 지못한것은아니엇스나 그것은단 론효범이의 작란인줄 눈치채이 맛든것이다 실상 진변호사는 물 진작치우지안엇든 커진집신을보 인숙이에게 들킨것을 놀라면서도

『그런건모르셔도 조켓지요 남의비밀은 알라고하실게 아니지요』

매부의 청미가 부루퉁을 울스락 효범이는 컹컹터추은죽은 하야것다

『비밀이다? 비밀이면 종캇무더볼게 무에잇나? 남의사신을 도적질해보는놈이 남의비밀은못 지말란구?』하며 진변호사는 긔가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은다

『무엇이든지 시원스럽게말을 할랴면낭이! 그웨아이가 그변석냐?』

명분을모르는 효범이는 웃쑥날으면서 물러네이고 안젓는것이 가엽기도하지만 첫불리 인숙이일에 참견을해가지고 공연한 풍파를 일으키는것이 밉살맛기도하엿다 효범이는 잠잣고앗엇다 매부도 잠간숨을누거가지고

『네가다—물으는것이 아니다 만은 웨네가 현일이면 네가햇소 하고바로말을 못할것이 무예란 말이냐? 아쎄쌋치 배혓것이 그뿐은아니겟지?』하며 온화로운 목소리로 준절히 남으랜다 효범이는 속으로 부쓰러움을 늣겻다 자긔의인격이 매부보다 못하다고는 결코생각지 안는다 그러면서 큰소리가나고 남매간에말다툼을 하게될것이 무서워서 빗드로 대답을하다가 그러한 수지람까지 듯게된것이 자긔의 인격을 싹긴것가타야 분하엿다

▲訂正 사십칠회『四一一』둘재人단에『안숙이의 염서를 들고이궁리저궁리에얼이싸지엇든효범이!』는『인숙이의편지를 다시들고 이궁리 저궁리에 얼이 싸지엇든……』의 오

時事一束

江景基靑定總 강경녀자긔독청년회(江景女子基督靑年會)에서는 지난 십일월삼십일오후팔시에 향산예배당에서 정긔총회를열고 진용을새로 개혁하는동시에 강경디방녀자계에잇서 우수한 인물을망라하야 새로운 임원을 선거하엿다하며 그규측은 만국녀자긔독교청년회의 규측대로 사용하기로 통과한후 매월례회대신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하고 동오후십일시에 폐회하엿다는데 신임원은 다음과갓답니다(강경)

會長李信愛、副會長沈光燮、書記宋雞悅、李仁淑、會計沈光順、宗敎部長李貞子、社交部長梁淑、體育部長金鳳順、敎育部長金信愛、理事部長□光汝、朴德根、南活蘭、金鳳順、尹東燮、許泰順、李貞子、沈光燮、李乘化、梁淑、李信愛、朴士雞(各區域幹事略)

理春女子夜學會 홍춘서분

학교일긔(三五) 소년팔경

『귀리오』는 십삼과 오년급인데 나이는 열두살이고 생김안머리에 얼골빗이하얀아희엿슴니다 그의아버지는 털도의고원인데 귀리오를 맛으로 만한아들을두고 아주가세가 가난하게 사러가는사이엿슴니다 귀리오에게는 제멋대로 내맛겨두지만 학교만은 언제든지 잔말을하며 일상『공부해라 공부잘해라』하고 권면하엿슴니다 졸업식혀서 조흔월급자리를어더가지고 살림사리를 돕게할생각이엇슴니다

그의아버지는 매우늙어고 또괴로운일을 만히 하기때문에 나이보담도 훨신더늙어보엿슴니다 그래도 한집안살림사리를 지탱하여나아가가만 하겟슴으로 매일군무를하는외에 여러군데서 대서(代書)를맛타다가 밤늦게가지 책상압헤서 쓰고잇섯습니다 요새는 잡지 발송하는봉투에 주소성명을맛터쓰는데 크게경자로 오백장을써야 겨우 륙십전을밧게는터 밧지 못하엿습니다 이일은 매우어려운것 갓해서 로인은 밥을먹을째에도 쎄쎄로 며돈밥을흘니이는수가 잇섯슴니다 『매우눈이 어두어졋구나 그밤일에 감수가되겟다』하고 각금혼자말로 웅얼거렷슴니다

어느날 귀리오는 『아버지 내가대신쓰지오 나도아버지처럼 훌륭하게쓸터이니』

『아니 너는공부를 해야한다 네게는 학교에서하는공부가 데일큰일이다 한시간이라도 네시간을뻐가새아서와서는 아니된다 네뜻은 고마우나 그런일은결코 식히지아니할터이니 다시는 그런말은다시하지마라』

귀리오는 그아버지의성질을 잘 알고잇슴으로 구지에더말을하지는 아니하고 혼자마음속으로 생각만하엿슴니다 저녁마다 밤이깁흔뒤에 아버지가 일을맛치고 아잠붓자는것을 귀리오는알고잇섯슴니다 몃번이나 열두시시게가친뒤에 의자를뒤로 쓰는소래가들니고 아버지의 조용한 발자최가 들렷든지! 그래서 귀리오는 아버지가자는 틈을타서 조용히옷을가린입고 침실에서 빠져나가 아버지의방으로드러가서 불을켜노코 책상에안졋슴니다 책상우에는 흰조희와 주소성명을쓴 명부록이잇슴니다 귀리오는 붓을들고 아버지의필적과 갓흔바른글자를 쓰기시작하얏슴니다 마음은뛰엿스나 얼마간 무서운생각도잇섯슴니다 쎄쎄로손을 한장두장 쓰어가며 쎄쎄로 올부비다가 다시원긔를내어쓰고 가다간는 가만히 귀를기우려 무엇인지 듯기도하고—그러는동안에 일백스무장 이십권엇치를 써버렷슴니다 쓰기를맛치고 붓을그전자리에 노코 불을 끈후에 발쏫흠으로 살금살금거러 침실로 도라갓슴니다

◇쇠러의파우스트 환상화(幻想畵) 『하리·클락크』作

……죽엄이란밧(外)게숨어잇는것이아니니라

식이요『먹엇는불평을 풀게하야주엇다』는『먹엇든 불평을 풀게하야주엇다』의 오식이며 『자네들나희이십이면』의 『자네들 나희이십이면』오식이기 뎡정함

▲訂正 작삼일본지부인란과사슴『조선살인범』은『조선인살인범』의誤 그가운데이십사인이방화범』이라함은『그가운데녀자가이십사인이오』의誤 방화범이이십육인』이라함은『삼십이인』의誤

少年東亞日報

相愛少年團事業 강경상애소년단(江景相愛少年團)에서는 그동안 학교당국자의 무리한 간섭을 여러번바다가면서도 더욱분투로력한결과 회세(會勢)가 더욱진보되며 진용(陣容)을 더욱굿게하엿다는바 특별히 무산아동을위하야 로동조합(勞働組合)이층에서 지난십이월일일에 야학개학식을 행하엿다는바 당일에 입학한생도가 남녀합 사십여명에 달한다하며 강사는 량긔주(梁基周)박룡국(朴龍國)뎡인흥(鄭仁興)세분이 시랍니다(강경)

雜論 中國留學 過去現在將來(7)
頌兒

三、華東各大學
가、中國大學槪觀

『八大學』內에도 運動의强弱으로 學校의名聲의高下가 決定되는것이므로 自初로 各種運動을 專門으로 獎勵하야 南洋이 一九一九年에 東吳가蹴球錦標(優勝牌)를 奪하고 翌年에 滬江의籃球錦標를 獲하야 頭角을 出하자 連하야 東吳及東吳의田徑賽(陸上競技) 復旦의籃球 滬江의網球가 年來로 優勢를 取하더니 一九二四年에 滬江이 多年約翰南洋의 獨占이던 蹴球를 連勝하니 이에『八大學』의 勢力은 群雄割據의 狀態에 빠지고 말엇더라 是年秋期에는 南洋이 自退하고 之江이 運動不振으로 自退하야 約翰과 同伴키를 拒絶하고 自退하엿슴으로『八大學』의 燦爛한 歷史가 이에 中絶될 處가 잇는지라 이와同時에 上海에 新設되는 大學이 雨後에 竹筍가치 兩三年間에

(南洋)Nanyang University, Shanghai
(約翰)St. John's University, Shanghai
(滬江)Shanghai College, Shanghai
(復旦)Futan University, Shanghai
(東吳)Soochow University, Soochow
(金陵)University of Nanking, Nanking
(東南)Southeastern University, Nanking
(之江)Hangchow Christian College, Hangchow

上海徐家滙	南洋大學	敎務處
上海梵王渡	約翰大學	同
上海楊樹浦	滬江大學	同
上海江灣	復旦大學	同
蘇州天賜莊	東吳大學	同
南京支樓	金陵大學	同
南京	東南大學	同
杭州	之江大學	同

華程을 算할때에는 반드시 約十仙의郵券을 同封함을 要하되 勿論 中國郵票라야 所用될것이라 八大學의 英文名은 如左하더라

다、其他各大學

八大學은 原來運動界의名聲을 가지고 稱함이어니와 其外에도 設備와內容이 八大學에 지지안는 大學이 不少하니 以下에 大略紹介코자하노라

南京에는 法政大學과 金陵女子大學을 들지니 前者는 國立의 單科大學인바 法律、政治、經濟를 專門敎授하는中 敎員은 大部分이 中國人이다 學識과經歷이 相當한者이며 金陵女子大學(Ginling college)은 所在地가 南京이며 敎會學校이오 B、A、의學位를 주며 敎員은 西洋人이 半이더라

九江에 南偉烈大學이 잇스니 亦是敎會學校이오 B、A、의學位를 주며 敎員은 西洋人이 半이더라

上海에 잇는 大學은 一一히 枚擧할수업스되 그重要한者만들면 同濟大學은 工科、醫科가 잇는中 特히 德語로 敎授하며 敎員中에는 德人이 만코 德國留學의 길도잇더라 同濟醫工雜誌는 中國의有數한 專門雜誌의 一이라 그러나 普通程度學生은 德語準備에 적어도 三四年을 虛費하여야 된다 上海大學은 赤色大學으로 去夏에는 英國官憲의 搜索과 封鎖를 當한바 지금은 그名聲을 자랑하지못함은 閉校가 되든지하는 中에잇스며 上海라 東吳大學法科가 上海虹口에 在하니 純全히 美國式의 法律學校인바 卒業生中에는 何世楨兄弟等 名士들이 잇고 卒業하자마자 辯護士試驗에 入籍할資格이 生하는것이 學生으로 日增하는中 今明間에 中國政府에서 正式으로 註冊되면 더욱 興旺할것이더라

東南大學商科가 上海法界에 在하야 亦是名聲이 日高하는中 今番政變에 東南大學이 動搖됨을 따라 影響을 바들듯하엿스나 아직까지 無事함은 多幸이더라 그밧게 江亢虎의 南方大學、張君勵의 國立自治學院(自治大學?)徐謙의 法政大學、馬寅初의 大夏大學、何世楨兄弟의 持志大學、及文治大學、中國公學大學部、東方大學、春申大學、法人의 셰운 聖芳濟大學、震旦大學、哈同의 倉明大學(?)、國民大學、中華大學、等校 枚擧키 不能하나 各其 競爭의 結果 特色으로 자랑하는 科目이 잇고 또 向學熱이 漸高한 現中國이라 다 維持에 困難이 업는 貌樣이라 今番 五卅運動의 結果 所謂 聖約翰大學 離校學生을 中心으로 新設한 光華大學은 匪林橋의 假校舍에서 大中學生 一千二百이 란破天荒의 盛況으로 開校하엿는데 그 將來가 特히 括目되더라(此項完)

(北美의天國에서)
요한

작별업시 떠나온지 다섯봄을 지낫서라
소식조차 끈혓스나 니즈신줄 알엇더니
물결에 부친글을보고 눈물겨워 하노라

◇

조식이 쓴혓다고 니즐줄이 잇슬손가
봄바람 녀름비에 님생각업슬것가
니즐줄 남이야알지만 버못니커하노라

童謠 아가야
김현홍

一

아가아가 울지말아
떡을주랴 밥을주랴
떡도실코 밥도실소
우리엄마 젓만주소

二

아가아가 너의엄마
알농산에 준주사말
뭔농산에 산호사말
심어노코 싹이나면
오메들아

三

아가아가 울지말아
떡을주랴 밥을주랴
떡도실코 밥도실소
우리엄마 젓만주소

四

아가아가 너의엄마
평풍속에 그린수탉
홰를치고 울거든낭
빗두락에 살문개가
멍멍짓고 울며든낭
오메들아

五

아가아가 우지마라
떡을주랴 밥을주랴
떡도실코 밥도실소
우리엄마 젓만주소

아가아가 너의엄마
둘남쑥에 게수나무
너머서쉬 싹거든낭
웅달웅달 쉐려집피
무지개가 쏫치건낭
오메들아

아가아가 너의엄마
너당돌에 잉어새기
것을달나 울거든낭
춘녀왓헤 쎡거미가
덩굴밧헤 집을치면
오메들아

아가아가 너의엄마
뒤산에서 눈이오고
압들에서 쏫이피여
치나만상 바귀거든
오메들아

아가아가 우지마라

詩歌

산골로
權坡

산골로 가나이다 다람쥐와 동모삼아
구렁속에 춤추고 피랑새와 노래하며
숲속에 려행하리

산골로 가나이다 커녀노을에 목욕하고
바위우에 쉽쉬다가 휜달과 벗을삼아
금은(金銀)별(星)로바둑두려

산골로 가나이다 타는가슴에 맷진설음
시내물에 씨처내고 풀무불에 복긴마음
솔(松)바람에 식히려

산골로 가나이다 악취를 피우고쇠림엉긴
칭칭한 거리를떠나서 피빠러먹는 검은아귀에—
흰몸덩이 짓밟고 단니는 커자를 떠나서 산골로

안타갑은나마지
不二門

오날도 여귄히 일은아츰부터 지금싸지
山을넘고물을건너 헤매나하고 차저단녀슴니다
그러나한숨짓자 希望의싹한마리가
우숨처며 나러감편임니다 그러나
期約하지아니한님이 언만 니즐수업는 내이길네
날과밤을 새여 찻노라나 四肢는풀니고 마음은
닷업는 벌판에서헤매임니다

詩調
鄭雷

오—님이여!
痲痺된 心臟에
歡惡의 注射를
어느째에나 노시렵니가?

님이오시는 그째는
멀어진 四肢는 쎄만앙성하고요
心臟의 흘러커
피한방울 업습니다 빼일가요!

달밤에 님을 떠나
산길을 가을턱에
달실고 흐르는물 목메여 우노매라
아마도 無心한사내발말덩 님의별을

仲秋月 밝은달이
客窓에 빗칠적에
님을 떠난 외로운손 가인의회포 어이하리
두어라 無心한달이 밀갑정 님본듯이

社告

本支局記者洪淳日君은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고 金澤祿、宋錫純君을 記者로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濟州支局 白

本支局에서 千萬燮君을 總務兼記者로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高敞支局 白

本支局에서 業務를 擴張하기 爲하야 李初生君을 記者로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梁山支局 白

●訂正 本報第一千九百七號에 天支局 社告中記者朴永□君은 □□의 誤植이기 玆에 訂正함
東亞日報 順天支局 白

本分局總務兼記者李銘鎔君과 同記者卞□□君은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고 記者로 李英淳君을 選任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六臺分局 白

本支局 支局所를 開城洞十番地로 移轉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群山支局 白

本分局總務兼記者崔□□君과 同記者□□□君은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龍仁分局 白

本支局에서 業務를 擴張하기 爲하야 黃世門君을 記者로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戡寧支局 白

本分局記者李文熙君은 形便에 依하야 解任하고 李俊哲君을 總務兼記者로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楊市分局 白

本分局에서 安昌炯君을 記者로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順川支局 白

本支局에서 金應洙君을 記者로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順天支局 白

本支局에서 業務를 擴張하기 爲하야 (黑橋面龍淵里駐在)李鳳□君을 記者로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黃州支局 白

黑橋分局長趙錫泳氏는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고 分局長兼記者로 趙基亨君을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黃州支局 白

本支局記者金萬藏君은 事情에 依하야 解任하고 韓銅錫君을 記者로 採用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東亞日報 靈岩支局 白

●訂正 本報第一千八百九十九號에 揭載된 社告中에 本支局顧問金在鼎은 金在昇으로 誤植되얏삽기 玆에 訂正함
東亞日報 新乫坡支局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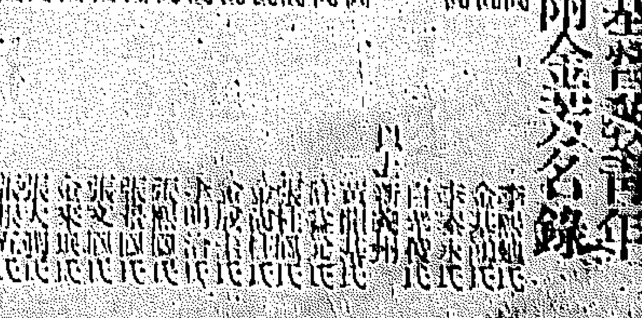
本支局에서 左와如히 職員을 改選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시압소셔
記者(自西面駐在)趙英鐸
同(三西面駐在)金洪濟
東亞日報 新乫坡支局 白

最當한 不景氣에는 永久的인 職業이 必要한 手藝를 수는 ● 確實히 利益을 製品 受取할 수 있는 當하는 大阪市 靜業 容易한 南江町 ○ 九

◉ 地方事業
ミヤコ合資會社
電話土佐堀三八六七番

補血 榮養 フェラトーゼ
제 도 라 휘
此劑는 血液形成에 必要한 成分을 結合하야 製한 이 上 無比의 理想的 補血强壯劑이외다
各藥房에서 販賣함
說明書進呈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大阪 臺北 紐育

京城黃金町一丁目
京城紡織株式會社
各地特約店
三神山 天桃 삼성표 不老草
우리의입을 조흔의 목자
외에…
SUPERIOR SHEETINGS
KYUNGSUNG PANG JIK HOISA



在日本東京朝鮮基督敎靑年會會館建築費寄附金芳名錄

第一回(無順)

本人이本會會館建築寄附金募集事로平壤、鎭南浦、新義州、舊義州、龍川、龍城、宣川等地方에巡廻하엿슬때에 該地方人士의多大한愛顧를蒙하와 爲先新聞紙上으로써 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一九二五年十二月二日
在日本東京朝鮮基督敎靑年會
總務 崔承萬 白

合計壹萬五百參拾六圓也

以上平壤 / 以上鎭南浦 / 以上宣川 / 以上新義州 / 以上舊義州 / 以上龍川

[illegible]

清津富寧兩郡 青年聯盟組織

來六日清津서大會開催

吳 春、李晩鍾、尹鶴基、崔士龍

咸北淸津府內에잇는淸津靑年會、淸津女子相愛會、共榮靑年會三團體의主催로淸津府外富寧郡에散在한靑年團體聯盟을去月二十四日에發起하고創立準備委員까지選定하엿던바右記時日場所에서創立大會를開催한다고(淸津)

一、時日 今月六日午前十時
一、場所 淸津靑年會

◇準備委員
鄭石道 姜相元 金甲植 張鴻國 金東純 張震

義勇青年會

新水鐵里서創立

市外新水鐵里에서는去番大洪水時에相當한靑年團體가업서서困難한點이莫大하엿슴을느끼고엿스며이에새로운事業을하여보자는目的으로義勇靑年會를組織하고지난一日夜七時에그洞里講習所에서創立總會를開하엿다는데任員은如左히選定되엿다고(高陽)

◇任員
▲會長鄭浩錫▲副會長鄭弘燮▲總務李基周▲智育部長李斗泳▲體育部長朱金均▲社交部長尹相德▲經理部長鄭和燮、卓晟鎬▲書記南基善、梁在熙

開拓者同盟

淸道孔岩서發起

淸道郡雲門面孔岩洞에서는有志四五人이開拓者同盟을發起하고去月二十八日午後九時頃에同洞私塾에서發起會를開催하엿다는데發起委員은다음과갓다고(淸道)

◇發起委員

咸安青年創立

去月廿九日에

慶南咸安郡에서靑年會를創立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定期인去月二十九日午前十一時에咸安公立普通學校에서會員七十餘名과馬山勞農社代表로出席한外多數人士가會場에滿한中에서趙漢輝氏의開會辭로비롯하야梁伯氏의趣旨說明과趙珍奎氏의經過報告와會員點名이잇슨後臨時議長趙漢輝氏를選擧하엿스며各地에서온祝文祝電을朗讀한後規約通過와議事로午後四時半에終하고左記委員을選擧한後無事閉會하엿다고(咸安)

◇委員
趙漢輝、梁伯、李圭鍋、趙文梅、韓胄憲、崔戢東、姜鳳秀、韓瓚烈、趙圭理、李圭晛、金鎭奎、李在松、趙珍奎、趙章大

委員會

別項報道와如히創立總會를圓滿히맛친後同日第一回執行委員會를卽席에서開催하엿는데常務執行委員은如左하며
▲總務部李圭鍋▲社會部趙珍奎▲敎鍊部金鎭奎

素人劇

當日夜當地勞働夜學生과本會會員一同이創立을紀念하기爲하야提燈行列로市內를一週하엿는데合致된群衆은無慮千餘名에達하엿스며準備中이든素人劇도當日부터始作하야各地方을巡廻하리라는데劇界有名한裵相哲君과朴甲順女史外數名이參加하엿슴으로興味도매우조흔貌樣이라하며一般은多數同情하기를바란다고(咸安)

流星會創立

去一日仁川서

去一日午後七時柳町二十一番地에서仁川府內에잇는私立初等學校敎員과敎育界의關係者朴昇南、李化道、秦宗鼎外十餘人의發起로互相親睦과智識交換을目的으로流星會를創立하엿다고(仁川)

安城記者團

去廿八日組織

去月二十八日午後三時安城郡內馬山分局에會合하야本報安城支局長金台榮氏를議長으로推薦한後安城記者團을組織하는同時諸般事項을討議하엿다는데宣言綱領과討議事項의全文은如左하다고(竹山)

◇宣言(略)

◇綱領

一、우리는互相協調로서同職者의親睦과團結을圖함
一、우리는一致한步調로써言論의權威를發揮함
一、우리는記者의修養을不怠하며社會貢獻에努力함

◇討議事項

一、言論權威에關한件
우리는言論機關의發展과權威를伸張發揮하며迅速하고確實한報道와公正한批判을期함
一、民衆運動에關한件
民衆運動을促進키爲하야最善의努力으로써此를援助하며此에妨害되는團體又는個人의罪狀을摘發하야社會的으로制裁를加함
一、農村問題에關한件
農村進步에努力하며農村疲弊의原因을調査硏究하고惡地主及高利貸金業者를爲始하야民衆生活의根底를侵蝕하는各方面의罪狀을摘發하야大衆의覺醒을促케함

◇規約(略)

農民五十餘名이 山陰會社에殺到

作料를안減하면不納한다고

慶北金泉山陰道株式會社支店에서는去月下旬에農民五十餘名이殺到하야小作料를減下하라고一大騷風波를일으킨일이잇섯다는데이제그詳細한말을듯건대前記會社에서金泉郡에小作人이六百餘人으로每年收穫이一千六百餘石에達한다는데從來부터該支店에서는小作料를過多히徵收하야一般小作人의不幸이만튼中今年에는鳳山代項兩面에例年보다尤甚하야七、八割甚至於全收穫을小作料로納付하라도오히려不足하다는等苛酷히定하엿슴으로一年동안風雨를무릅쓰고피땀을흘니며耕作한結果에버한되의所得이잇스며所得이잇다하여도費用도不足하는等實로不忍見의慘狀을當한小作人들은數次會合하야此의對策을講究한結果그와갓치該支店에殺到하야너무나苛酷한査定을말고小作料減下를要求하엿스나該支店은말하되여러분이이와갓치紛爭을일으키지말고小作料를納付하라하며小作人側에서는支店長의計策이얼마씩이라도納付하는대로徵收하고남어지는追後에다시밧으려는手段이나안인가疑心하야小作料를減下하야주지안흐면納付할수업다고매우强硬한態度로나가자함에當支店長은此問題를가지고趙[illegible]京城本支店에게協議하야遠處理가업스면問題가擴大될듯하다고(金泉)

望城面民大會

學校期成會組織

全北益山郡望城面은本郡의最北偶에位하야오히려忠南江景市에接近하야잇는바本來敎育機關으로는私立校가數個잇섯스나維持困難으로廢校되고但在天主敎會에서經營하는啓明學校가남아잇슬뿐이나그位置의偏在로因하야不振의運에잇스며數三年來는面內兒童이忠南江景公普로만히通學하는便宜가잇섯스나그도今春부터는他道他郡이라는關係로絕對入學을許치안음으로不得已就學兒童들은舊式書堂에서漢文을修學하는데로還元한形便임으로一般有志는子女의向上을爲하야一日이라도學校를設立치안으면안되겟다고屢屢히紛議하여오든中去月二十九日正午에同面事務所에서面民大會를開催하고數百餘名有志人士가會集하야會長李鍾祥氏司會下에서滿場一致로學校期成會를組織하고直時로進行方針에對하야爛商熟議하고黃熙一氏外十人의委員을選定하야部署를定한後同六時에散會하엿다는데발서부터一般의自進的同情이遝至한다고(裡里)

東部洞에夜學

農閑期를利用하야

平北鐵山郡鐵山面東部洞約에서는農民의閑暇期三冬을利用하야勞働夜學을開催한다는데一般農民은多數聽講하기를바란다하며講師와밋課目은方今準備中이라고(鐵山)

文川公普校 盟休生登校

學父兄의交涉으로 校長은要求에順應

咸南文川公立普通學校五六年生徒가柴田鶴田두訓導의言行에反感되여그들을排斥하기爲하야盟休까지하엿다함은이미報道하엿거니와學父兄들은去一日上午九時에同校溝井校長에게다시交涉하엿다는데同校長은學父兄의意思를尊重히하야要求條件에順應할趣旨로生徒를訓戒한後無事히登校하엿다고(文川)

「라듸오」班 巡回日程

本報釜山支局主催

本報釜山支局에서는旣報와如히文化宣傳을目的으로當地朝鮮人의經營인二葉電氣商會의後援下에「라듸오」巡回隊를組織하야三南各地에巡廻하기로하고來五日에釜山을出發할터이라는데爲先其地名과日程은如左(但追加도잇고日程變更이잇슬것임)하다고(釜山)

◇日程及地名

▲十二月十日金泉▲十一日永同▲十二日沃川▲十三日太田▲十四日論山▲十五日江景▲十六日裡里▲十七日群山▲十八日沃溝▲十九日金堤▲二十日古阜▲二十一日泰仁▲二十二日萬頃▲二十三日井邑▲二十四日全州▲二十五日任實▲二十六日南原▲二十七日谷城▲二十八日玉果▲二十九日淳昌▲三十日潭陽▲三十一日昌平▲一月一日休(光州)▲二日光州▲三日和順▲四日綾州▲五日南平▲六日羅州▲七日松汀里▲八日長城▲九日高敞▲十日靈光▲十一日榮山浦▲十二日咸平▲十三日務安▲十四日木浦▲十五日海南▲十六日靈岩▲十七日康津▲十八日長興▲十九日寶城▲二十日筏橋▲二十一日順天▲二十二日光陽▲二十三日麗水

釜山印工에檄文

印刷同組에는警告文 全州印工에서

全州印刷職工組合에서는同業釜山印刷職工組合同盟罷業事件에對하야去月二十七日午後七時에委員會를開催하고左와如히決議하엿다고(全州)

◇決議事項

一、今般釜山印刷職工組合의同盟罷業에檄文을發하야聲援하는同時에積極的으로援助할일
一、釜山印刷同業者組合에反省을促하기爲하야警告文을發할일

大邱印工刷新

來五日懇親會

大邱印刷職工組合에서는定款更正、組織改革等內容充實에必要한諸機關을整備로만은研究를하여오든바거의完成이되엿슴으로오는五日午後七時府內京町群芳園에서披露兼、組合員의懇親會를開한다고(大邱)

紀念祝賀盛況

裡里衡平分社에서

釜山衡平分社에서는만흔活動을開始하여오든바近日에名稱을다시裡里衡平社로改稱하고自祝하는意味로서去月三十日午後一時[illegible]

滯在穀物은 牛車로運搬

信川穀物商의困難

朝鮮鐵道株式會社黃海線에서使用하는運輸貨車가不足하야信川驛附近에山積한穀物이滯在되는同時에이로因한經濟의影響과一般으로갓는困難中에信川穀物商協會에서對策을講究中이라함은旣報한바이니와信川穀物商會에서는信川驛에交涉하는同時에朝鮮鐵道當局에累次陳情한일도잇스나何等整理가업슴으로運搬에集中한穀物이貿買도되지안을뿐만아니라旣히仁川京城其他方面에連絡으로貿買된穀物에는運輸가되지못함으로期限이超過되며迫到한것이만흔故로할수업시每日牛車數百餘隻式으로信川三十錢式의交費를支出하며載寧新換浦方面으로運搬하는中一般의困難이莫甚하다고(信川)

道評議員選擧

鳳山

黃海道鳳山郡에서道評議員候補者二人(朝鮮)을選擧한다함은旣히報道한바어니와去月三十日에開票할것을不得已한事情으로一日을延期하야十二月一日午前十一時郡廳會議室에서警官及各新聞記者가立會한後嚴重히開票를하엿다는데受點數와氏名은아래와갓다고(沙里院)

▲金弘陳七十八點▲崔[illegible]植四十五點▲李東俊十六點▲李[illegible]鎭十四點▲[illegible]十二點▲[illegible]六點▲李[illegible]六點▲[illegible]四點▲[illegible]五點▲林[illegible]三點▲[illegible]三點▲二十二名은一點式

仁川

仁川府에서는[illegible]一日午後二時부터府協議會[illegible]하고仁川府道評議員[illegible]選擧投票를한結果[illegible]하기로하고散會하엿다고(仁川)

▲河野竹之助氏[illegible]點▲[illegible]七點

仁川出入汽船

客十一月中

[illegible]

◇十一月上旬
▲入港船一艘▲出港船一[illegible]
▲[illegible]
◇同月中旬
▲入港船[illegible]▲出港船[illegible]
◇同月下旬
▲入港船[illegible]▲出港船[illegible]
◇合計
▲入港船[illegible]▲出港船[illegible]

金泉橋開通式

[illegible]

革新總會延期

[illegible]

大豆市況不振

永興財界閑散

[illegible]

四三二一特等等等等 十九圓七十錢　十八圓七十錢　十六圓五十錢　十五圓

道東普校學藝會

[illegible]

釜山에檢擧旋行

[illegible]

武埗公普學藝會

[illegible]

明倫講習開講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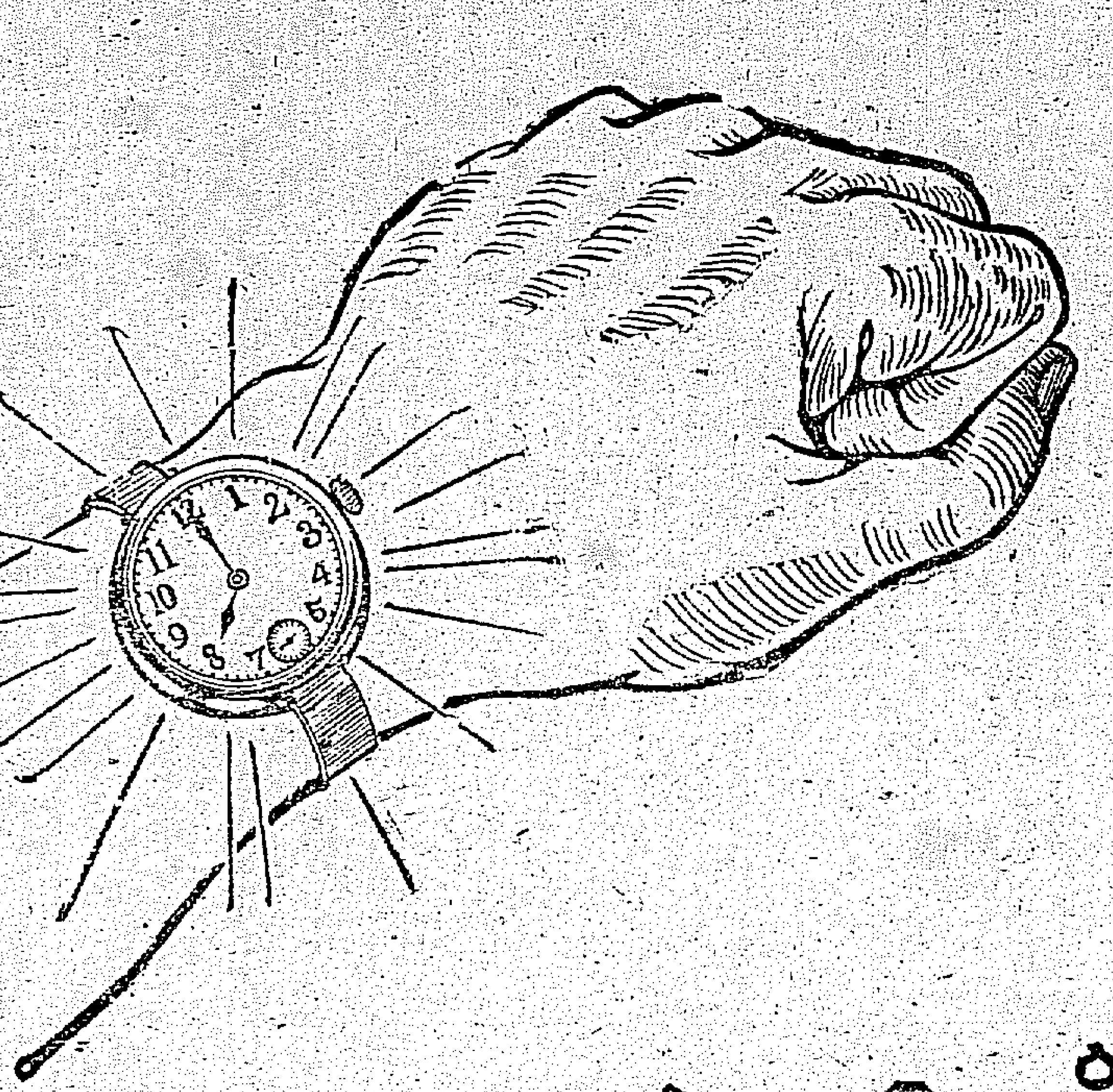
[illegible]

水害同情金

水害罹災者救濟會

(以下咸南文化郡城面長撥)

[illegible]



景品附賣出

어느분이幸運을잡으실가?

金側腕卷時計（瑞西モーリス製 十五石入）**五拾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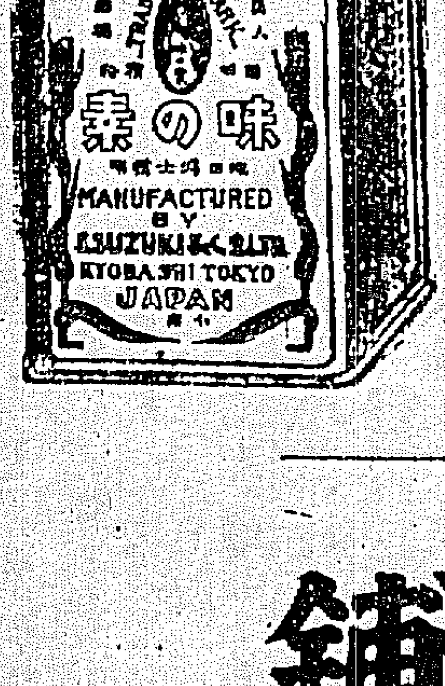
銀側腕卷時計（瑞西イエズタ製 十五石入）**貳百個**

賣出總數、아지노모도（味の素）小罐拾五萬個中右의特別景品의外에普通景品으로

아지노모도 **味の素**小罐壹個마다

特製「仁丹니닥는약」丸罐入一個式無漏添附

大正十四年十月二十日부터朝鮮、臺灣、支那及南洋各地到處의아지노모도（味の素）販賣店에서取次販賣하오니賣盡되기前에速히最近販賣店에서買求하시요



（味の素小罐原圖）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東京・大阪・名古屋・上海

11—X

龍井村에戒嚴令

◇해마다 흉년이드러 북간도일대의동포는 초근목피로 연명을이는다는 비참한소식이 끗지안튼터니 금년에는요행이 풍년이드럿다는 깃분소식이 북간도 해버에 간도동포의 수비를 튼튼케하엿다 ◇그러나 하소식이 아직도 다하기전에 룡정촌(龍井村)에계엄령이 포고되엿다는 불길한보도가 우리의 눈을 한번의심하게하엿다 이어에 놀란 만한경보이라 ◇중국의 동란이란것이 그리 한 번에 시작되것이 아니오 그근원을헤아리면 경쟁에 비롯하야 이제 군벌이 할거하는 형세를 이루어 밤낫실새업시 싸홈을하고 잇는바 이번의 동란이 한번의 동란에 그치지안코 그나라의 동란이라고하는 당파의 권비의 싸홈에 불과한것이라 ◇우리는 중국의 동란의 원인을말하랴는것이 아니다 이번 그동란으로 말미암아 벗더욱이 다만 우리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엇더케 보호할가 하는것이다 ...

京仁各團體 勞働運動者懇親

위선네단톄에서준비회발긔

경성에서 활판직공조합(京城印刷職工組合) 경성인쇄직공조합 등 네단톄대표자들이 모히어 경인로동자간친회(京仁勞働運動者懇親會)를 개최하기로 하엿다더라

一、時日 十二月六日午後八時
一、場所 京城仁寺洞八四漢陽青年聯盟
一、參加申請期 十二月六日午後四時까지
一、參加資格 京城仁川에在한勞働運動團體代表者五人以內(必히所屬團體의代表證을要함)

京城府來年度 土木事業概觀

할만한사업은산가치만흐나 돈이업서서맘대로못한다고

래년도 경성부토목사업에 대하야 경성부토목과당국자는 아래와가치 말하더라

래년도 토목비 경상부(經常部) 삼십만원과 임시부에 대하야 간선도로보장공사와 하수도간선공사(幹線道路補裝工事) 와수해복구공사(水害復舊工事)와 국부도로개수공사 등이다

◇幹線道路改修工事 局部道路改修工事등인데 래년도로서 대일공사가 완결되고 ...

◇下水道幹線工事

◇水害復舊工事

演藝

巧妙한人氣集中策

米映畫俳優宣傳의發達된策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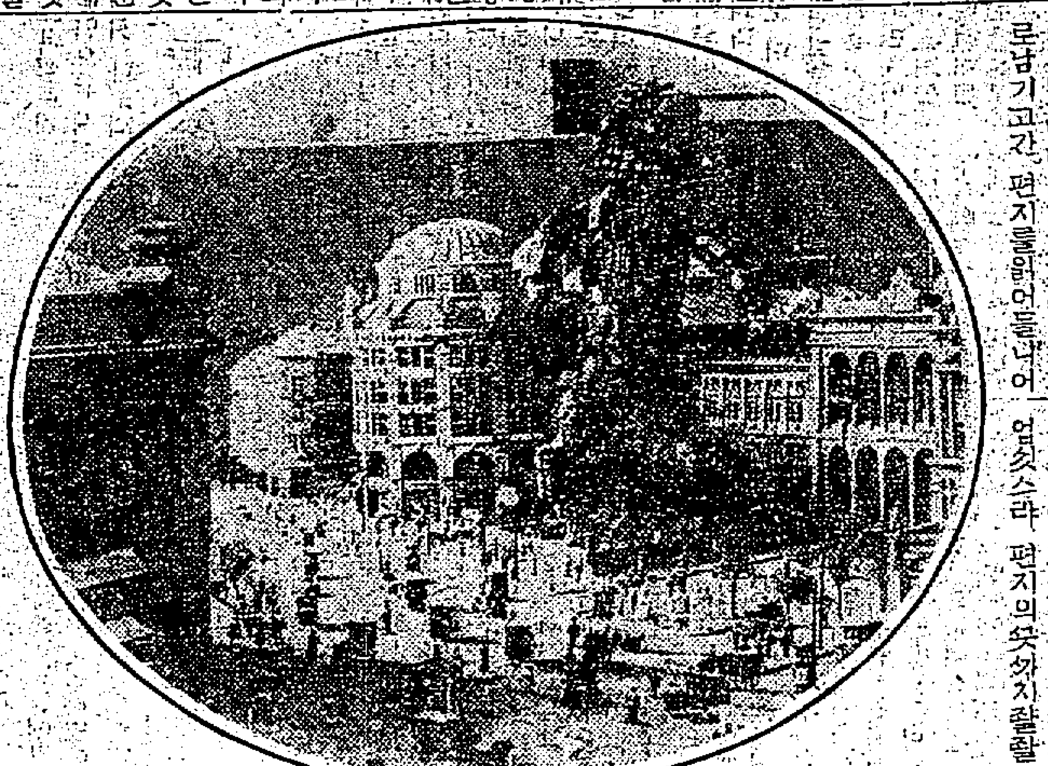
(약) 호당으로신문기자를속이어 명성에유명해진미국영화녀우

미국에서는 일류배우가되면 그한사람의 선전사무를맡아보는 사람들이 몃사람씩잇다고합니다

新舊映畫

文藝名畫 시라노 全十一卷

(4) 伊太利映畫



說諭와搜索願等 一年間十餘萬件

격증되는경찰범측위반자 금년상반긔에도오만여인

補化院教育難

겨울에불때것이업서 ...

家主가盜賊

천여원을훔처

突然한드집으로 쌈스레金錢强奪

범인네명은톄포되야검사국

늑대를生擒

강원도양양서

半島少年創立紀念

金簪强奪犯

이년징역구형

公金六千餘圓을 橫領潛跡했다被捉

고양군룡강면회계계서긔

獨逸伯林에映畫展覽

독일백림(伯林)『카이괘란』에서는지난구월이십오일부터삼십일까지 영화와 사진에관한 전람회(展覽會)가개최되엿섯다고한다 ...

優美館에上映

이영화는 명오일밤부터 시내관철동우미관(貫鐵洞優美館)에서 공개될터이라더라

舟橋公普 唱歌會

시내주교뎡 공립보통학교에서는 명오일토요일오후한시부터 동교대강당에 창가회(唱歌會)를개최할터이라는데 ...

朝鮮劇場 本報讀者優待日

◇朝鮮劇場◇ 本報讀者優待日 優待券欄外에 十二月四日 一日間

◎天氣豫報◎ 曇後晴

懸賞

八谷式製麵機械 국수기계 營業用 一日의製麵高 貳拾五貫以上 二錢切手有送 하면型錄進星 大型壹臺 小型壹臺 ◇家庭用 金五拾圓也 金貳拾五圓也 製麵機械專門製作 大邱大和町 八谷工場

生의復活悲觀으로樂觀 精力活力의源泉 一日一回就寢前服用의 에모코一루作用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支店 京城黃金町一丁目 東京本店 大阪支店 附屬醫院 定價表 十回分 金參圓 廿回分 金五圓 四十五回分 金拾圓 百回分 金貳拾圓

正十四金 保險付 トランセンド萬年筆特價提供 特價金貳圓八拾錢 品質의優秀하기歐米品보다優秀할지언정 ... ◇製作發賣元 東京市神田區表神保町三番地 廣業社製作所

豐盛染料의價值는 道廳에서試驗終了 販賣를特約함 獨逸國가리一染料顏料藥品製造會社特約店 京城豐盛洋行代理店 釜山本町三丁目 全元澤商店

朝鮮劇場

優美館

世界的强力消化素 タカヂアスターゼ 타카 디아스타 제 發見者 高峰博士 特許專賣 三共株式會社

各種印材製造販賣 中島印材製造所

◇釜山鐵道病院東萊出診所◇ ◎開業廣告◎ 內科 小兒科 眼科 外科 產婦人科 齒科 東萊邑內市場通り 山田醫院 公醫 山田誠二 齒科醫師 金昌圭 ◎貧困者는無料施療함◎ 電話一〇四番

經濟時論

中國의 財政(十二)

(關稅會議를 際하야)

外此를 一番抵當으로 한 露佛、英獨、續英獨借款及義和團賠償金의 四借款이 있다 此等借款의 年年 元利支拂은 四千二百萬兩에 不過함으로 尙히 三千萬兩의 剩餘를 生하는데 此를 「關餘」라 稱하야 中央政府의 重要한 財源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鹽稅인데 鹽은 古來로부터 政府의 專賣品으로 徵收가 容易할 뿐만 아니라 其收入額도 稍히 大하고 此亦是 革命後 外國人의 徵收管理에 移하야 있음으로 確實한 收入이 있다 年年 增加하야 八千萬元에 上하는데 此를 擔保로 한 借款은 [illegible] 借款 善後借款以外 二番擔保로 한 湖廣鐵道 京滬鐵道 續英獨借款이 있다 此等借款의 元利支拂金額은 [illegible]萬元에 不過함으로 尙히 [illegible]千萬元의 餘剩이 있서 政府의 重要한 財源이 되며 此를 「鹽餘」라 稱한다

다음에 經濟借款이라는 것은 大槪 交通部에 關한 借款인데 [illegible]

年年不足되는 生牛需給狀況

統計上每年二萬餘頭의 不足

總督府의 統計에 依하면 朝鮮牛의 現在數는 百六十萬五千頭인데 年年生產二十八萬二千頭 屠殺三十一萬七千頭 斃死二萬七千頭 [illegible] 差引三萬八千頭가 殘在하는 바 一年移出頭數는 六萬頭에 達함으로 二萬餘頭의 不足이라 한다 [illegible]

家畜의 增產은

增米上 더욱 必要

產米增殖計劃의 實現은 [illegible] 朝鮮에 있서는 產米가 增殖되는 그만큼 地力의 消耗는 더욱 甚할 것이다 產米增殖에는 農法의 改良上 家畜의 增殖이 必要하고 地方消耗防止에도 [illegible]

大阪在米

三十八萬七百餘石

堂島米穀取引所調査에 依하면 三十日 市中在米 三十八萬七百五十五石으로 前旬에 比較하면 四萬三千五百[illegible]石의 增加인 바 그 中 日本玄米는 二萬二千五百十九石 [illegible] 朝鮮玄米는 [illegible] (大阪電)

鮮銀限外認可

金額四千萬圓
十五年一月末外지

朝鮮銀行은 總督府理財課를 通하야 大藏省에 認可申請中이던 鮮銀限外發行 二千五百萬圓을 四千萬圓 大正十五年一月末外지 擴張의 件은 一日附로 認可되엿다더라

京取配當四分

重役會에서 決定

京取市場에서는 二日重役會에서 今期決算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左記 處分案을 決定하엿다더라

▲利益處分案

當期利益金 一二二、四三大圓九五

國際貸借

日本의
支拂九千萬圓

十一月末現在入超二億八千六百三十七萬圓에 對하야 十二月은 多少入超로 終了될터이며 貿易外受取勘定은 外資輸入을 差引하고 八千萬圓乃至九千萬圓에 達할지며 今年中外資輸入은 一億二千萬圓乃至一億二千萬圓임으로 今年貿易外의 受取勘定은 三億圓을 超過하야 差引九千萬圓程度의 國際貸借支拂勘定이 된다 [illegible]

京取總會

京取總會는 二十五日午後三時開會하기로 決定하엿는데 [illegible]

前期繰越金	一〇、六三四四六五
合計	三三、二七一四六〇
此處分	
法定積立金	一、五〇〇〇〇
重役賞與金	二、〇〇〇〇〇
社員恩給基金	一、〇〇〇〇〇
株主配當(年四分)	二四、〇〇〇〇〇
後期繰越金	四、七七一、四六〇

官鹽收穫減少

豫想斤數보다六割五分減收

十四年度官鹽收納總勘定은 廣梁灣三千八百九十九萬二千斤 德洞一千二百七十萬八千斤 貴城七百三十六萬六千斤合計五千九百十三萬二千斤 南市管內는 五百八十二萬八千斤 朱安管內는 七百二十六萬九千七百斤 南洞八百三十萬二千斤 君子 [illegible] 總合計 八千四百五十六萬五千二百九十八斤인바 此를 今年 豫想收納斤數一億二千九百七十萬二千斤에 比較하면 六割五分의 減少인바 更히 過去四個年收納成績에 比較하야도 今年度成績은 不良하다이에 過去四個年間實收量을 示하면 如左하더라

年次	貴城 南洞 南市 君子 除함	斤數
十一年		[illegible]
十二年		[illegible]
十三年		[illegible]

減配勸告中止

成績不良으로

大藏省에서는 銀行의 減配에 對하야는 三回勸告하엿든 바 其成績이 不良함으로 此下半期에는 東西一流銀行의 意嚮如何에 依하야는 減配의 勸告로 中止할 意嚮이라더라 (東京電)

九州地方 灣米勢力

需要漸次增加

最近 九州工業地帶의 米需給狀況을 調査하고 온 前京穀理事三浦氏는 말하되 臺灣米는 日本種의 改良增殖은 總督府에서 命令的으로 行하는 朝鮮과 달리 生產 [illegible] 臺灣米는 鮮米와 比較하야 品質이 [illegible] 九州工業地帶에서도 [illegible]

客月中 日本貿易

出超三千萬圓

大藏省發表에 依하면 十一月中日本對外貿易은 輸出二億一千二百八十八萬一千圓 輸入一億八千二百五十八萬六千圓 差引三千三十萬五千圓의 輸出超過인 바 昨年同期의 入超九百八十七萬三千圓에 比하면 자못 好調를 示하엿스며 今年一月以後累計는 輸出二十億九千七百六十萬八千圓 輸入二十三億八千五百七十八萬二千圓으로 差引二億八千八百四十一萬四千圓의 入超이더라 (東京電)

金銀貨出超

昨日大藏省調査에 依하면 十一月輸出入金銀貨는 輸出八百二萬四千圓 輸入二萬七千圓 計八百四萬一千圓의 出超이며 一月以後累計는 二千七百八十九萬圓의 出超이라더라 (東京電)

責任廻避努力

[illegible]

米炭坑罷業[illegible]

[illegible]

產米、土木配定

[illegible]

總督府豫算

[illegible]

期米 前場保勢

(三日)

	當限	中限	先限
一節	三[illegible]	三[illegible]	三[illegible]
前日前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昨後場三十一圓五十四錢에 軟調로 止하엿더니 今朝阪地初付가 又復十一丁低付하야 三十五圓六十五錢을 報하엿스나 當地는 買氣稍旺하야 三十一圓五十四錢에 前止 [illegible]

後場同調

	當限	中限	先限
前日後止	三一.[illegible]		三一.[illegible]

取組高(單位石)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一一〇〇〇

[illegible]

各店俵合

保合商情

昨今 阪仁步調는 保合을 始作하는 感이 잇다 [illegible]

買上發表期待

今年은 政府米多量拂下한 關係로 [illegible]

大受米悲觀說

前月의 大受米 [illegible]

米豆餘響

◇…今朝阪地初付는 昨止에서 十一丁의 低付하고도 節節低弛하는 光景인데 [illegible]

仁川正米標準時勢

大阪期米

東京期米

後場止跡氣配

◇先限 三十五圓六十八錢

各地期米高低

各地穀物

株式 前場寂寂

(三日)

▲京取十錢低 ▲鍾新八十錢高 ▲大新四十錢高

京取配當鈍感

京取는 昨日重役會에서 四分配當으로 [illegible]

鍾新買寫風情

[illegible]

大新警戒濃厚

今朝大新은 依然不氣乘의 商勢로 [illegible]

株式片片錄

◇…吉見仲買店休業으로 [illegible]

勸信當日取引

當日取引에 勸信株는 三圓四十錢으로 成請되엿다 [illegible]

前場諸株步調

後場續薄商

▲京取九十錢高 ▲大新保價

鍾新漸次上伸

後場諸株步調

京取短期取引

短期算定及日步

大阪長期取引

大阪短期取引

東京期株前場

大阪三品

橫濱生絲

大阪砂糖

京城綿絲布

京城手形交換

日本銀行券

日本金利

海外經濟

春香

어사 (二) [第六十六回]

春園作

[illegible]

質疑應答

[illegible]

當選謝禮

今般京城商業會議所評議員選擧에 際하야 有權者諸氏의 深厚하신 同情에 因하와 幸히 當選의 榮光을 蒙하얏삽기 玆에 紙上으로써 謹히 謝意를 表하나이다

大正十四年十二月一日

一級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一級 田中三郎

二級 朝鮮製藥合資會社

一級 堀內滿輔

一級 辻本嘉三郎

一級 戶島祐次郎

一級 株式會社 大澤商會支店

一級 西崎源太郎

一級 陳內茂吉

二級 角田被服合資會社

二級 本吉清一

刑事共同研究會

本人等이 刑事被告人의 利益을 爲하야 [illegible] 合으로 一人에 對한 報酬로서 二人以上이 [illegible] 照亮하심을 務望하나이다

辯護士 許憲 京城府 [illegible]

辯護士 金泰榮 京城府 [illegible]

辯護士 金炳魯

辯護士 金用茂

辯護士 李宗聖 京城府 (電話光化門 一〇七番)